

1월11일(월)/사도행전5:1~6

**제목: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하나님**

아나니아는 자기가 소유를 판 돈의 일부를 헌금하였다(1~2절). 베드로는 이를 두고 사탄이 그 몸에 들어갔다고 선언하였고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3~5절).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었다. 일부만 헌금했다는 것도 잘못된 일이 아니다. 그의 죄는 일부를 드리면서 모든 것을 드리는 체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4절). 그래도 죽일 필요까지 있었을까? 그러나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초대교회는 인류사에 있어서 위대한 출발과 같았다.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첫발을 내디디는 위대한 하나님의 공동체였다. 그런데 이 출발부터 불순물이 들어온 것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은 하나님은 이 위대하고 숭고한 첫 스타트에 끼어있었던 불순물을 제거하신 것과 같다. 구약에서 위대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범한 후 가나안을 향해서 뜻깊은 전진을 시작하는 순간에 아간의 범죄는 심각한 것이었다(수 7장). 그것은 위대한 공동체에 불순물이었다. 하나님은 위대한 공동체에 불순물을 놔둘 수 없었다.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불순물처럼 살고 있다면 이 본문을 잘 새겨 보아야 한다.

1월12일(화)/사도행전5:7~11

**제목: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다.**

아나니아가 죽은 지 3시간이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나타났다(7절). 그녀도 역시 땅 판 값이 이것 뿐이라고 남편과 동일한 거짓말을 했다(8절). 그 결과 그녀도 남편과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고 말았다(10절).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한 말을 다시 주목해보자. 베드로는 거짓말을 하는 그녀에게 “어찌 함께 꾀어 주의 영을 시험하려하느냐?” (9절)고 하였다. 그들의 거짓말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범죄였다. 초대교회는 교회는 교회의 황금시대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의 교회 안에도 선과 악이 혼합되어 있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약간의 위로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악과 거짓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죄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짓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성도의 마음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만약에 그런 성도가 악과 거짓에 빠지면 그는 그의 마음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성령 하나님의 행위였다.

1월13일(수)/사도행전5:12~16

**제목: 출석률이 떨어진다면..**

초대교회 안에서 주옥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였다(12절).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모이는데 꾸준하였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었다. 본문 속에는 모든 의학적인 표현들이 발견되어진다. 예루살렘 부근의 사는 병들고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도 다 치유함을 받았다(16절) 병든 육체의 치유와 귀신들린 정신적인 치유가 동시에 있었다. 곧 모든 종류의 병인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을 더 교회로 발견음을 옮기게 만들어 주었다(14절). 물론 지금은 초대교회 때 보다는 기적이 덜 일어나지만 그러나 지금도 교회는 아직도 악인을 선인으로 만들고 있다. 아직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 자기의 인생을 변화하게 만드는 교회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우리 교회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가? 그것은 그들의 삶이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어가기 때문 일 것이다. 반대로 교회 출석율이 떨어진다면 그 이유는 교회가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월14일(목)/사도행전5:17~32

**제목: 오뚝이 사도들**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제차 투옥시켰다(17~18절). 믿는 무리의 수가 급증하면서 당황한 그들은 사도들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나 사도들은 주의 사자에 의해 구출되었고 계속적인 복음전파의 명을 받았다(19~20절). 그리고 새벽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파하였다(21절). 산헤드린 공회는 부하들을 시켜 다시 사도들을 공회 앞에서 세우고 심문하였다(21~27절). 이 때 베드로는 자신의 신분 노출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사자의 명을 좇아 다시 담대히 복음에 관해서 변론하였다(29~32절). 비록 짧은 설교였지만 복음의 내용을 잘 함축하여 전한 훌륭한 설교였다. 마치 사도들은 쓰러뜨려놓으면 다시 일어나는 오뚝이와 같았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오직 한가지 밖에 모르는 원칙주의자들이었다. 그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절대 “이 길이 안전한가” 묻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이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일까?” 만 물었다. 그리고 그들은 안전 대책 따위는 강구하지 않고 무조건 앞으로 돌진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험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들과 우리가 많이 대조되지 않은가?

1월15일(금)/사도행전5:33~42

### 제목: 의외의 동조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분노한 산헤드린은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였다(33절). 이 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산헤드린이 사도들을 살해할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과거에 ‘드다’와 ‘유다’가 반란사건을 일으켰지만 이 두 역사적 폭동사건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역사속으로 사라졌음을 언급하면서 이 사도들의 운동도 그런 차원에서 보아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36~37절). 사도들의 복음 전파 운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계속 유지 될 것이요 사람에게서 났으면 드다와 유다 사건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었다(38~39절). 결국 이것이 공감을 얻었다. 가말리엘의 제안을 따르기로 한 산헤드린은 사도들을 때리고 복음 전파 중단을 요구하고 풀어주었다(40절). 가말리엘의 중재로 인해서 사도들은 목숨을 구했다.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여 의외의 동조자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방면에서 항상 옹호자를 일으키신다. 이것은 악인의 발악을 하나님께서 제지시키는 현장을 생생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우리의 환란 날에도 하나님은 종종 이런 의외의 동조자를 보내시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